



**마녀 집안에도 부녀 갈등은 있더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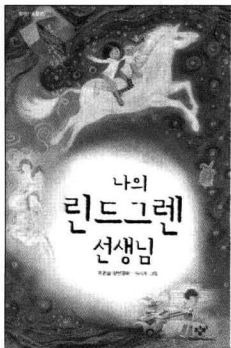
《우리집은 마녀집안》

마리 데스플르생 글 | 이상규 그림 | 김이스 옮김 |

달리 | 192쪽 | 값 8,000원

엄마와 딸만큼 강적도 없습니다. 아침에 다투고 점심 때 “잘못했어요” 혹은 “미안하다”고 말한 후 저녁 때 “내일 숙제 다 했나?”는 말로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그들.

마녀라고 다를 건 없더군요. 《우리집은 마녀집안》의 갈등은 딸을 실력 있는 마녀로 키우고 싶은 엄마와 지극히 평범한 여자로 남고 싶어 하는 딸의 바람이 충돌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하고 싶다고 말하던 딸이 손가락 까딱 않고 집안의 그릇을 깨뜨리는 묘력을 보여주네요. 엄마는 더욱 신이 나 딸의 잠재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열성을 보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딸을 탐색하며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하는 엄마, 엄마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며 할머니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딸. 마치 자녀의 성공에 잔뜩 기대를 하는 부모님과 부모의 기대가 두려운 아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문학이 손잡는 지점,**

**고통과 고민이 사라져요**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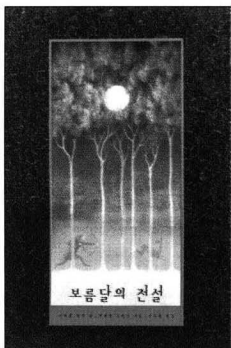
유은실 지음 | 권사우 그림 |

창비 | 184쪽 | 값 8,000원

때론 사람 아닌 존재가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 식물, 작은 물건 하나도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지요.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은 매우 작고 소소하다 여겨지는 것들에도 반응합니다. 아이들은 상상의 나라를 펼쳐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살고 있는 비읍이는 엄마를 통해 린드그렌 작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린드그렌 선생님을 특별한 친구로 사귀게 되지요. 일면식 없는 타국 사람이지만 비읍이는 선생님께 편지를 쓰며 내면의 고민, 불만 등을 털어놓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환경, 엄마를 이해합니다.

아이가 책을 읽은 후 그것을 통해 건져 올린 생각들을 현실의 삶에 어떻게 대입하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확장시켜가는지 그 과정들을 모범답안격으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중요한 건, 비읍이만이 아닙니다. 비읍이와 린드그렌 문학이 만나는 지점, 책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 지점에 방점을 찍고 읽어보세요.



**이거라고 생각한 순간,**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름달의 전설》

미하엘 엔데 글 | 비네테 슈뢰더 그림 | 김경연 옮김 |

보림 | 48쪽 | 값 12,000원

《보름달의 전설》은 세상을 등지고 성스러운 삶을 사는 은자와 세상에 쫓겨 방탕하게 살아온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애인의 배신과 아버지의 파산으로 파혼을 하게 된 젊은이는 자신의 모든 책이 “지푸라기처럼 덧없었다”는 철학자의 글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도둑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진리와 영원을 추구하다 성자가 된 젊은이는 천사로 둔갑한 미물에게 오히려 현혹당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미물에게 현혹당해 자신을 회개할 수 없게 된 성자를 구하는 건 살인자 도둑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진리를 만났다고 생각한 순간, 실은 아무것도 버린 게 없음을 깨닫는 성자를 보니 “버려야지, 비워야지” 하면서도 늘 뭔가를 원하고 꿈꾸고 있는 우리 마음을 들किन분입니다.

**정글의 법칙, 실감나게 그랬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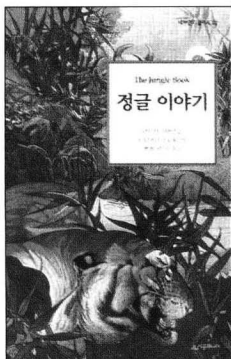
《정글 이야기》

러드야드 키플링 글 | 존 룩워드 키플링 외 그림 |

햇살과나무꾼 옮김 | 시공주니어 | 284쪽 | 값 10,000원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늑대들의 손에 의해 자라난 늑대 소년 이야기. 누구나 알 만한 어린이책의 고전이라구요? 그러나 이 책은 조금 다릅니다. ‘정글 북’으로 알려졌던 정글 이야기를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소개하고 있어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고전 읽는 맛을 제대로 선사하거든요.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시어 칸’과 늑대 무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간 ‘모글리’를 정성스럽게 키우는 늑대 부부의 사연은 참으로 감동적이죠. 그러나 세상에 빛만 있는 것은 아니듯, 정글에도 마음 따스한 늑대 부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곰, 늑대, 호랑이, 코끼리 등이 펼쳐는 정글세계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힘 있는 자의 횡포와 폭력, 탐욕, 자신만의 세계관을 고집하는 이기심,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이를 건드리려 하는 비겁함 등 갖 악의 얼굴도 보입니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혹한 정글의 법칙. 행여 내가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진 않았는지 현실의 우리 모습과 대입시켜가며 읽어보세요.



## 날고픈 욕망, 노력하면 이렇게 이룰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꿈》

라이언 앤 헌터 글 | 안나스킵벤스 그림 | 최미경 옮김 |

책그릇 | 40쪽 | 값 8,800원

“아빠! 우리도 비행기 타요.” 비행기 타는 게 오락 한 게임 하는 것처럼 쉽고 간단한 일인 줄 아나 봅니다. “그래. 태워주마” 장담하며 비행기 놀이로 아이를 달래보지요. 처음엔 시시하다고 말하던 아이는 아빠가 급조한 가짜 비행기 앞에서 금세 신이 납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하늘을 날고파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현실화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새는 나는데 인간은 왜 못 날까?”라는 궁금증 하나로 인간은 갖가지 날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커다란 옷을 입고 높은 탑에서 뛰어내려 보고, 몸에 날개를 붙이고 펼쳐보기도 합니다. 책은 연도별 그림표를 활용해 비행의 역사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역사지만 인간이 자신의 호기심을 욕망으로 키워가고 욕망을 현실로 이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보면 마음까지 짙해집니다.

## 그때 그때 다른 선생님은 싫어요

《선생님이 모르는 것》

발레리 제나티 지음 | 알랑 메츠 그림 | 최윤정 옮김 |

바람의아이들 | 72쪽 | 값 7,000원

《선생님이 모르는 것》을 읽으면 ‘뜨끔’ 해집니다. 선생님들은 다소 촌스러운 분입니다. 커다란 안경을 쓰고, 긴 치마를 입고, 일 년 내내 물방울 블라우스를 입고, 갈색 머리를 틀어 올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은 고지식하고 엄격한 선생님의 진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그런데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엄마를 둔 미사가 전학을 오면서 선생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민한 아이들이 이를 눈치 못챌 리 없겠지요. 어린 현자들은 눈이 밝기도 하거나 착하기까지 합니다. 미사를 도우면서 선생님의 본 모습(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을 되찾아주고자 다양한 공리를 해봅니다. 꼬마 현자들은 “선생님! 그래도 어느 한 쪽만 챙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라고 껌칙한 충고를 던집니다. 스승이 자녀야 할 중도의 미덕을 울곧은 어린 현자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 “아이들 무서워서 뭘 못하겠네”라고 반응하는 선생님이라면 다시 읽어보셔야겠습니다.

## 죽음, 끝이 아닙니다

《천의 바람이 되어》

아이리만 지음 | 사타케 미호 그림 | 노경실 옮김 |

새터 | 48쪽 | 값 8,900원

밝고 귀엽고 예쁜 것 일색인 어린이책에 언제부턴가 ‘죽음’ 담론이 등장했습니다. 《천의 바람이 되어》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한 편의 시로 들려줍니다.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시 한 편으로 시작합니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로 시작하는 <천의 바람이 되어>는 죽은 이가 무덤에 묻힌 게 아니라 바람이 되어, 새가 되어, 별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문다고 노래합니다. 미국에선 감독 하워드 혹스, 배우 마릴린 먼로 등 유명인이 죽은 날에도, 2001년 9·11 테러 때에도 이 시를 낭송하며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랠 것입니다. 작가는 이 유명한 시에 얽힌 미스테리를 풀고자 흔적을 찾다가 실패하고 결국엔 상상의 나라를 펼쳐 한 편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아이를 잉태한 후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인디언 여인의 슬픈 사연입니다.

## 행복, 모두 누려야 나도 행복합니다

《우파니샤드 콧속말로 전하는 지혜》

이재숙 풀어썸 | 풀빛 | 224쪽 | 값 9,000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나만 최고이고, 나만 소중하다는 생각. 타인의 삶은 대충 짓밟고 일어서도 괜찮다는 이기심이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겠지요. 그런 탓에 인도철학의 젓줄이라 불리는 우파니샤드의 행복론은 지금 시대에 유난히 귀 기울이게 되는 소리입니다. 우파니샤드에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자신의 근원적 모습을 깨달으면서 얻게 되는 행복(해탈, 즉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나와 세계,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만족감을 주고, 사람, 자연, 세상 모두를 자신으로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인식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우파니샤드 철학 18종 가운데 일부를 뽑아 열 가지 주제로 재구성합니다. 나찌게다가 엄라대왕을 찾아간 이야기, 땅 속 악마 이수라와 하늘 위의 신들이 싸움을 벌인 이야기, 왕이 온갖 명예와 재산을 버리고 고행하는 이야기 등 두고두고 읽어도 좋을 장면 같습니다.

김창연 기자

